

“잘 지내길 바라”



홍경안 역
시시일각

이별은 흔적을 남긴다. 특히 사람이 짙을수록 헤어짐의 생채기도 깊다. 흔히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는 말로 위로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작별한 이들에게 공허함만 부풀릴 뿐이다. 사랑과 상실은 동일한 서사 안에서 반복됨을 모르진 않음에도 그렇다.

프랑스 개념 미술가 소피 칼(Sophie Calle)은 사랑과 이별이라는 일상적 경험을 재치 있는 방식으로 풀어 미술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내용은 이렇다. 그녀는 2004년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편지를 받았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한다면서도 갈라설길 원하는 듯한 편지에 같은 대체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마지막에 쓰인 “Take care of yourself(잘 지내길 바라)”라는 문장은 꽤나 혼란스러웠다. 다시 만나자는 것 같기도 하고 떠나겠다는 것 같기도 한,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일까 싶었다.

이에 소피 칼은 그 편지를 문학가, 철학

자, 기자, 정신 분석가, 배우, 가수, 변호사,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107명에게 각자의 전문적 관점으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철학자는 사랑과 이별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편지 속 문장이 어떻게 윤리적·존재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폈고, 정신 분석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심리 상태와 무의식적 의도를 추론했다. 이 밖에도 댄서는 춤을, 가수는 노래를,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책임과 계약적인 요소를 뽑아냈다.

소피 칼은 그 결과물과 과정을 글과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했다. 전시를 열고 책을 만들었다. 이후 그의 ‘이별 극복기’는 거대한 다원 예술 프로젝트로 완성됐다. 바로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 프랑스 국가관에서 처음 공개된 ‘Take care of yourself’ 프로젝트이다.

개념 미술의 중요한 특징인 텍스트와 대중 해석 가능성에 주목한 이 작업은 ‘부제’를 화두로 한 전작들의 연장이다. 그녀는 1981년 베니스의 한 호텔 객실 청소부로 일하며 손님이 나간 객실을 촬영해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자취를 담은 ‘L’Hote’(호텔, 1981)이라는 작품을 만든 적이 있다.

에펠탑에 작은 방을 설치해 놓고, 방문

객들과 같이 누워 대화를 나눈 작업 ‘Room with a View’(전망 좋은 방, 2002)에서 마냥 ‘Take care of yourself’ 프로젝트 역시 누군가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베니스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며 그의 행적을 기록한 ‘Suite Venitienne’(베니스의 추적, 1980)이나, 자신이 타인의 관찰 대상이 되는 경험을 다룬 ‘The Shadow’(그림자, 1981) 등은 ‘Take care of yourself’와 마찬가지로 사생활과 공적 영역, 관음과 관찰을 넘나드는 구조로 돼 있다. 다만 ‘Take care of yourself’의 경우 이전 대비 사적인 이야기를 사회적·문화적 담론으로 확장시키면서, 예술과 삶의 경계가 보다 얇아진 측면이 있다. 실재를 벗어나 심리의 부재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 예술은 더 이상 작가 개인의 내러티브에 머무르지 않고 집단적 해석을 통해 얼마든지 열린 결말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도 하나의 차이다.

소피 칼은 프로젝트를 진행될수록 이별의 아픔도 무뎠다고 했다. 그녀는 가슴 아픈 이별을 객관화해 공유함으로써 마음속 상흔을 완전히 털어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이의 바람대로 잘 지냈다. 아니, 잘 지내고 있다. /미술평론가

혁신에 유학과 없더라



김지수 역
김서현 (산업부)

중국의 작은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139명의 소수 인력으로 빅테크에 필적하는 AI 성능을 내고, 개발 비용과 시간이 1/10밖에 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딥시크 쇼크’ 이후 GPU 1만5000장을 올해 말까지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샘 올트먼 CEO 방한 소식에 정체가 된 한국의 AI 기술이 대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쏟아냈다. AI 강국의 꿈을 꾸지만, 과연 GPU를 MS나 구글을 제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샘 올트먼 CEO가 한국의 기업들과 무엇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잊은 것이 있다. ‘인재’다. 딥시크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개발진이다. 딥시크를 개발한 인력 대부분은 해외 유학 경험 없다. 딥시크 R1을 만든 핵심 인력, 엔지니어 뤼푸리(30)는 베이징사범대학과 베이징대 AI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실습하며, 해외 경험 없이 국내 교육만으로 딥시크 개발의 핵심 인재가 됐다.

중국은 2017년부터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내놓고 AI 핵심 인재 1만 명 육성, 학과·연구소 확충, 산학 협력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행해왔다. 칭화대, 베이징대 등 주요 대학마다 AI 과정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에 2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며 AI 관련 논문 수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이공계 최고 수험생들이 대부분 의대로 진학한다. 의대 쏠림을 막으

려 무전공 선발을 시도했지만 서울대조차 3.7대 1로 실패했다. 높은 성적을 받더라도 당연히 의대로 향하는 현실 속에서, 인재 육성과 연구 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외 유학 없이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다.

모 반도체 기업을 다니는 A씨는 어린 시절 과학자를 꿈꿨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국에선 연구 인프라도 부족하고, 해외 유학 경험 없이는 인정 받을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기업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요즘 의대 입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캐치업 레이즈만 날리는 단기 정책에 머물러 있다. 단기 선전이 아닌, 인재 육성, 연구 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전환 등 기본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할 때다. /se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6일 (금 1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하지 마라. 48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좀 더 노력하라. 60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72년생 침묵해야 모두가 편하게 간다. 84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37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49년생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적다. 61년생 손풍에 뒤틀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73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를 높이고 실속도 챙긴다. 85년생 내가 먼저 행동해야 상대도 따라온다.



38년생 여기저기 계속되는 지출에 삶이 지겨워진다. 50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이 될 것이다. 62년생 늦었다고 포기 말자. 74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따라서 상쾌. 86년생 혼자서 외롭지만 둘은 괴롭다.



39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51년생 말은 쉬우나 주위 담을 수 없으니 조심. 63년생 혼자서라도 웃으면서 지내라. 75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 87년생 의견충돌이 염려되니 고집을 조심.



40년생 힘든 일은 기도로 극복. 52년생 호감이 가는 이상의 유혹이 있다. 64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76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88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간다.



41년생 승사에 취 말릴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 53년생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좋다. 65년생 매사에 귀찮고 심드렁하다. 77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89년생 아제의 친구가 뒤에서 씩씩이 배신감을 느낀다.



42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54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66년생 동업자에게 욕심을 부리면 발목을 잡힌다. 78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 출전이 필요한 날. 9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까 걱정된다.



43년생 자식과 살려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한다. 55년생 불평은 운을 깎는다. 67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지체. 79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는 일을 그르친다. 91년생 자식의 잉태 수이니 마음을 정갈하게.



44년생 재능 많은 자식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 56년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답을 찾자. 68년생 민망한 일을 겪을 수 있다. 80년생 평온한 바다에 한가로이 떠다니는 하루이다. 92년생 마음을 고칠 수 없다면 미련 없이 버려라.



45년생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 57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69년생 용띠 닭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81년생 걱정이 해소되니 도서관에서 자료를 마무리. 93년생 창업은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46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58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범이니 희망을 품어라. 70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82년생 손풍은 배가 가야 할 방향으로 부는 바람. 94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니.



47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59년생 주변이 인정해 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71년생 변화가 있어도 영향은 미미하다. 83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큰 이익을 놓친다. 95년생 하극상의 기질은 세월이 가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김상회의四季 立春을 지내며

절기를 모르는 사람도 입춘이 되면 추위도 물러갈 때가 됐을 뿐 아니라 곧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봄도 멀지 않았음이다. 입춘 후 2주쯤만 지나면 대동강물이 얼동설한에 얼었던 대동강물도 녹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추위도 옛 추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봄 춘(春) 자만 들어도 추위는 벌써 그 힘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 햇살 좋은 입춘날에 가정집 대문에는 입춘대길이라고 크게 써 붙인 것을 예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러한 입춘축(立春祝)을 보기가 흔치 않다. 한 이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대문 기둥 벽 문짝 등에 커다랗게 글씨를 써서 붙이곤 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고 복이 가득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집 대문을 비롯해 곳곳에 써서 붙였다. 태양력을 기준으로 할 때 입춘부터 정월로 친다. 따라서 새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원화소복(遠禍召福)의 의미를 담아 입춘축을 써서 붙이는 것이 당연한 행사였다. 원화소복은 글자 그대로 화를 면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도 큰 사찰이나 작은 암자에서는 입춘이 시작되는 절입 시간에 맞추어 입춘 맞이는 물론 삼재 소멸을 위한 불공을 함께 드린다. 일반적으로 입춘대길(立春大吉) 또는 건양다경(建陽多慶)을 주로 써서 붙이며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의 문구 역시 애용된다. 입춘대길은 입춘을 맞아 좋은 운을 기원하는 것이고 건양다경은 맑은 날이 이어지고 좋은 일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비는 것이다.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는 문을 열어 놓으니 만 가지 모든 복이 들어오라는 발원을 담고 있다. 국태민안 가급인족(國泰民安 家給人足)의 글귀를 붙이는 예도 있는데,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도 잘 먹고 잘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책 출간!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1		2	3	9				
3			1	5	2			
	8							
		6		3	2	4		
1		5	9		4	6	8	
4	7		3		5			
							3	
8	3		6					1
5		7		9				6

6	9		4			5	
	4	1					
		7			4	3	1
8			6	4	9		2
			8	7			
	4		9	7	3		6
1	5	8				3	
						1	5
2		4			6		7

8	9	5	1	7	6	2		
8	6	9	1	2	6	9	4	7
6	7	8	2	9	1	8	5	1
9	1	8	6	2	6	2	7	9
7	9	2	1	6	8	1	9	6
6	2	1	6	7	9	9	1	8
1	9	7	8	9	1	7	6	2
2	6	8	9	1	7	6	2	1
9	1	7	6	2	6	8	9	1